

새 천년을 맞이하는 21세기 환경교육

-21세기 환경교육, 생태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안 기 회

(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 교수)

1. 새천년을 위한 환경교육의 방향

20세기를 “경제의 세기” 라고 한다면 21세기는 “환경의 세기” 라고 부르는 학자들이 거의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인간의 긴 역사를 통하여 볼때 이제 우리는 분명히 전환점의 비탈에 서있는 것이 분명하다. 현재는 인류문명과 「환경문제의 핵」에는 바로 「핵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핵 전쟁 하나만으로 모든 생명을 포함한 인류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은 1945년 인류 최초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1979년미국 드리마 일섬 핵사고, 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대참사 등으로 지금까지 핵을 안전한 에너지라 믿어왔던 낙관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지구전체에 방사능 오염이나 핵겨울(Nuclear Winter)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었다. 거기다가 현 세계는 수소폭탄까지 발명하기에 이르러 더욱 가공할

만한 환경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듯이 지구의 위기는 자연의 위기가 아니라 바로 인간 사회의 위기로 성큼 다가왔다. 한편 현재 사회는 폭발적인 인구증가, 무분별한 토지이용,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체제 등 기하 급수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풍요를 누렸다고 믿는 순간부터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적조현상, 산림의 황폐화 및 이상기후변화 현상등이 전지구차원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이와같은 지구환경위기를 초래한 결정적인 과오는 지구와 한 국가의 물리적 한계를 생태학적 지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지구나 한 국가의 환경용량은 명백하게 한계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성장론자들은 경제개발과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욕망이 향하는데로 고도화 거대화 대량화로 끌어왔다. 그래서 현재의 환경론자들은 전통적인 개발론자들과 성장론자들의 개발정책과 교육정책은 급증하는 생태적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물론 공산주의도 그 사회체제가 보다 중요한 물리적 산물을 근간으로 하는 성장의 철학을 전제로 하한 현

재 인류가 처한 생태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개방사회나 성장사회를 전제로 한 정치학의 이론과 가치체계를 선도하는 교육이념은 생태적 차원에서 재검토 또는 재정립되어야 하고 새로운 생태적 패러다임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사회경제체제가 지향하고 있는 개방사회 또는 성장사회로 부터 균형사회, 정상상태 또는 비성장사회 심지어는 반성장사회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생태우선의 패러다임의 변환이 불가피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정치이념, 정치구조, 정치과정, 정책결정, 제도, 규범, 공공정책 등도 새로운 생태적 위기 관리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이미 21세기 환경위기를 예측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평등사상을 부르짖은 아시지의 성 프란체스코를 위대한 환경교육의 선각자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1992년 지나간 천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내다보면서 IBM과 미래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나간 1천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바꾼 주인공을 뽑은 10결중 프란체스코수도회 창설자 아시지의 성 프란체스코가 1위를 차지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간과 자연의 상호평등사상은 인간의 자연정복사상을 기초로 한 중세의 기독교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때 이미 인간의 지배에 의한 생태적 위기를 경고 했다는 데서 지난 천년의 큰 인물로 선택된 것이다. 그리고 21세기에 가셔도 현성장체제가 계속되고 환경위기가 더 악화될 경우에는 성프란체스코는 다음 세기를 움직이는 위대한 선각자로 다시

뿔힐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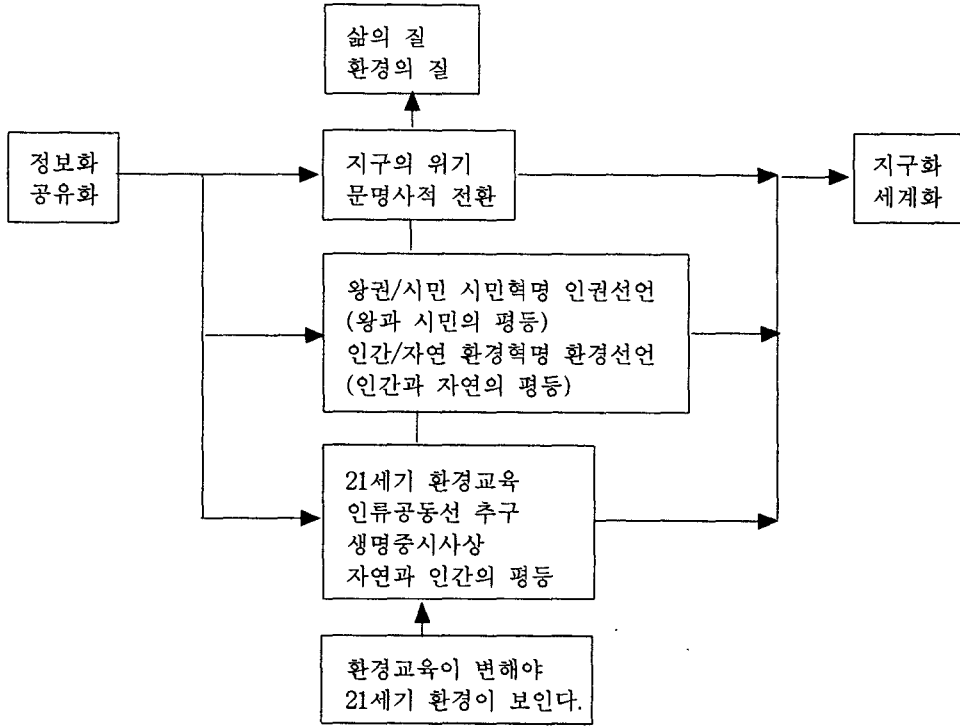
중세에 이미 해와 달, 바위와 흙, 나무와 새 그리고 못짐승들은 모두 인간과 형제자매라는 자연과 인간의 평등사상을 외친 것은 21세기 가셔도 더욱 생태패러다임의 중심사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역사적 견지에서도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생산관계, 기술 발달의 역기능,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 등으로 자연과 인간의 평등이라는 새로운 가치체계의 정립이 시급하다. 새로운 가치체계의 정립을 위한 환경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개의 대립적인 명제가 환경생태적인 남북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생태제국주의에 의한 적절한 비판과 대안 모색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개방사회는 폐쇄사회보다 발전적이라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이 생태적 위기를 자초했다는 논리는 이제 설득력을 얻게 된다. 새로운 환경 친화적 개방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만을 추구해온 규모의 경제가 현시적이고 몰량적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향한 환경교육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소유하는 교육보다 적절히 소유하는 환경교육의 체계 정립이 시급하다.

인간은 자연의 한부분이며 자연의 착취는 큰 인간의 의한 착취, 즉 인간관계의 파괴를 의미한다는 지난 천년의 소중한 교훈은 새로운 환경교육의 자료가 되어야 한다. 지구의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지구를 구제하기 위한 21세기를 향한 환경교육의 체계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1세기 향한 환경교육의 체계도》



II. 지구환경위기의 근원

1. 인간의 자연정복사상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서구의 의식구조 내지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인류의 생태적 위기를 초래한 역사적 근원이 되었다.¹⁾ 즉, 인간이 동식물 기타 자연에 비하여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물론 우월하다는 개념의 종래의 정치철학이나 교육철학을 지배하여 왔고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것은 과학적이기보다 정치

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것도 인간우월주의 표출에 불과하다. 이들의 관계는 지적행위 보다는 지배적 행위에 바탕을 둔 것이 분명하다. 인간과 짐승의 二元主義論은 정치가 경제와 환경개념을 포괄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비교정치학의 효시라 할 수 있다.²⁾ 인간사회와 짐승사회는 생활권의 경계, 지배의 형태, 단결협동경쟁의 정도등 특정한 비교의 변수에 따라 유사점과 상이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어떤 동물사회는 구조적으로 무정부상태에 있거나 특정한 지배계층의 지배하에 있다. 그러나 어느 동물사회는 영토를 방어하기도 한다. 이

1) Lynn White Jr,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967, pp.1203-1207

2) John Rodman, *The Politics of Nature*, Western Association Annual Meeting San Diego, Calif : April, 1973, p.10

와같이 인간과 동물의 사회적 행태는 유사점이 많으므로 생태학자들은 인간과 동물의 한계성이나 二元主義 지양되거나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래의 정치나 교육철학은 동식물 기타자연을 비정치적인 (The Non - Political)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치적인 것은 인간에게 국한하여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왔다. 데카르트는(Descartes)는 짐승은 비합리적이고 감각이 없는 시계와 같은 기계로 본 반면에 Hume은 짐승도 사랑과 미움, 동정을 느낄뿐 아니라 생각과 이성의 능력을 지닌다고 보았다.³⁾ 몽테뉴(Montaigne)는 동물이 인간보다 신에 가깝다며 동물의 영혼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왔다.⁴⁾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과 짐승이 평등하거나 짐승이 인간보다 우세하다는 사상이 정치철학사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Phthagoreans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인간은 동물논의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었다. 인간과 동물의 상호간 평등은 사상은 아시지의 성프란체스코를 제외하고는 중세의 기독교 시대에는 생각 할 수 없었다

그후 르네상스 시대의 몽테뉴, 계몽시대의 Hume, Rousseau에 이어서 Dawin, Kropotkin, 현대의 Lilly, Goodwell 등에 의하여 인간과 짐승의 평등사상이 주장되었다. 이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짐승의 행태는 인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간을 죽이거나 괴롭히는 것이 나쁘다면 똑같은 논리가 동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짐승은 근본적으로 인간만큼 합리적

일수는 없지만 자연적인 본능과 행태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인간으로 부터 소외되어 있는 동물이 자연법적 권리가 인정되거나 보호되어야 한다.

Plato에 의하면 사회는 인간군을 만족시키는 원리에 의하여 구성되기 마련이라 하였다. Hobbes는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다른 인간에 대하여 이리와 같다고 하였으며 인간의 속성은 탐욕, 잔인성 타종족의 정복 자기종족보전욕에 있어서 동물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인간자연의 이원론적 사상은 아리스토텔리스에서 시작하여 성토마스에 이어 다시 데카르트에 의하여 승계되었다.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사상은 인간이 가장합리적이라 보았고 동물은 단지 자연의 부속론 또는 노예로 간주 했다.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이원주의는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자연에 대한 지배자로서 위치를 확고 하는 교육이념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우월주의 교육이념이야말로 환경 위기 즉 생태적 위기의 근원이 되었다.

2. 開放體制의 패러다임

금세기 들어와서 확립된 사회적 규범이나 교육적 지식은 일방적으로 개방사회는 좋은 것이며 폐쇄사회는 나쁜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⁵⁾ 더구나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선진국들의 기술과 자본이 함께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이때 개방화의 의미는 매우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개방에는 환경

3) Rene Descartes, *Discourse on Method*(1637)

4) Montaigne, *Essays, Apology for Raymond Sebond*(c, 1575 - 80) : E. P. Evans, *The Oriminal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Animals*, London. 1906

5) Karl 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London : Rourledge and Kegan Paul, 1945

문제도 함께 이전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거대한 기술산업국가(The Technological Leviathan)를 이룩하였다. 반면에 비계획적인 산업의 팽창,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소모, 폭발적 인구의 증가,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을 오염 또는 파괴한 결과 생태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그렇다고 산업화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산업화 이전의 이른바 가난과 결핍의 시대에 형성된 교육과 제도는 물질적 산출이 풍요해진 현대에는 이미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이 결핍되고 무엇이 풍요한지 또 무엇이 개방되고 무엇이 폐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교육적으로 그 대상, 범위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산업사회의 산출인 재화가 사회성장률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가 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재화가 늘어날 만큼 자연자원은 그만큼 감소된 것이 아닌가. 개방의 철학과 교육의 이념이 적어도 자유민주의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 이념이 되어 사회정의 및 정치적 평등, 물질적 성장, 사회구조기능의 변화 등을 통하여 체제 발전에 공헌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방을 표방하면서 인간이 환경에 대하여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면 결과적으로 생태적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방사회의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으로 1세기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으로 첫째, 개방의 자체가 모호하고 교육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원시사회는 현대사회보다 양심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폐쇄적이었던 반면에 자연의 향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훨씬 개방적이었다. 중세는 현대사회보다 개인의 창의적 활동 측면에서 보면 폐쇄적이었으나 중세는 현대

보다 의식적인 경험 측면에서 보면 훨씬 폐쇄적이었다.

둘째, 개방의 한계성에 관한 문제이다. 개방사회는 고도의 사회구조, 기능의 분화를 특징으로 하는 전문분야에 따라 그 경계가 심화된다. 그러나 인구, 도시, 환경문제 등 생태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계내지 사회경제적 의미는 제 검토 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공사의 구분행정은 문화적, 법률적 것이며 생태적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하다. 생태학자들은 개방체제는 전체보다 오히려 분화된 부분만을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개방체제의 교육은 직선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한 생존권 또는 생태계를 관리하는데 부적절한교육으로 그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개방체제가 좋다고 하는 가정은 생태적 위기와 함께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론을 주장하면서 경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무너지기 시작했다.

적절한 관리와 통제가 없는한 자유방임적 개방사회는 생태적 기형을 초래 할 것이며, 환경론자들은 종래의 사회계약론 대신 이론과 생태적 계약론(Ecological Contracts Theory)으로 대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지속적인 성장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한 성장이념과 교육이념은 자본주의 체제는 물론 공산주의 체제에 있어서의 거의 신성불가침의 체제이념이 되어왔다. 그에따라 인간의 욕망이 향하는 대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온 결과 과학기술의 발전도 한계가 있는한 생태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만한 과학적 지식과 교육방법이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핵 안전문제에 관한 아무리 많은

시간과 비용을 R&D에 투입한다고 하여도 완전한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⁶⁾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하는 불도저형 전문 기술(Bulldozer Technology)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기하급수적으로 심화되는 생태적위기를 극복하기는 극히 어렵다.

이미 로마클럽은 비롯한 성장의 한계론자들은 지구의 수용능력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동클럽의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인구, 공업화, 식량생산 및 자연자원의 사용이 현재의 성장추세로 계속된다면 향후 2050년경에는 지구의 물리적수용능력은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동보고서를 주도한 미국 MIT의 연구팀은 동태적 분석 시스템을 응용하여 인구, 식량, 자원, 오염 및 자본투자 등 5개 변수를 컴퓨터에 투입, 세계모델(World Model)을 만들고 세계체제의 성장추세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⁷⁾ 그 주요 논점은 ①기하급수적 성장이 인구와 자본체제의 속성이며 ②인구와 자본의 성장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고 ③세계 시스템의 환류과정(Feed Back Process)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④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서 성장세를 약화시킨다든지 또는 한계에 이르기 전에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밖에 없으며 ⑤앞으로 세계시스템은 성장사회에서 균형사회 또는 정상상태의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 등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환경교육도 이제 성장패러다임에서 균형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이러한 성장의 한계

론에 대하여 성장론자들은 ①그러한 예측에 대해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며 ②제한성장을 할 경우 후진국 또는 개도국에는 결정적으로 불리하며 ③전문기술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므로 자원수요로 해결 가능하다고 반론한다.⁸⁾ 또한 영국의 Sussex연구팀은 MIT의 세계모델에 대해 인간의 지식도 기하급수적 성장한다는 사실을 무시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성장론론의 두 비판도 모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의 새로운 생태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III. 지구 환경선언과 환경교육의 연계

1. 지구환경선언의 의미

역사적으로 볼 때 기존의 제도나 틀로서는 그 사회의 병폐를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일 때를 위기라고 진단해 왔고 이러한 전환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章典” “宣言” “憲章”을 선포해 왔다. ‘權利章典’ ‘人權宣言’ ‘UN憲章’과 環境宣言과 自然保護憲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宣言과 憲章 등은 모두 역사적 전환기에 이념적, 지주적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전환기를 슬기롭게 넘기도록 하는데 유용한 귀감의 잣대가 될 것이다. 환경사에서 볼 때, 1972년 UN 人間環境宣言과

6) Hanns Alfvien, Energy and Environment,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1972, 28c5, pp. 5-8)

7) Dennella Mendows, et al, The Limits to Growth(New York : Universe Book, 1972)

8) Robert Heibrone, Growth and Surrial Foreign Affairs(1973), pp. 139-153

1982년의 UN 세계자연헌장, 1992년의 UN 리우환경선언은 모두 21세기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한 범지구차원의 방향제시와 실천강령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환경선언은 역사적으로 시민이 절대왕권에 혁명적으로 도전하여 왕과 시민이 대등한 지위에 서게한 人權宣言에 버금가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군주가 시민을 지배하는 인간대 인간 지배시대로서 이때는 인간성회복을 위한 인권선언이 중요한 시대적 명제였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을 정복, 지배하는 21세기의 고도산업사회에서는 자연도 인간과 생태계의 한종으로서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는 환경선언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세계각국의 노력은 냉정체제 몰락이후 신세계질서 형성에 환경이 새로운 이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종래에는 국제회의의 주요과제와 주로 군비축소, 경제안정이었으나 리우환경선언이후부터는 초국가적인 지구보전 전략이 새로운 주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1988년 미국 부시 전대통령은 환경대통령을 선언했다. 옛 소련의 고르비 대통령은 지구환경문제가 이념대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또한 서독 브란트 전수상은 연방정부계획에서 환경보호를 최우선시키는 최초의 수상으로 존경받고 있다. 같은시기에 지구환경위기 현상이 전세계 곳곳에서 속출하는 세기적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북해의 바다표범 매죽음, 미국과 중국에 체온을 넘는 열파, 캐나다와 소련의 한발, 방글리데시의 대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적으로 속출되고 있는 것도 1988년이다. 이제 지구환경문제로 외면하고서는 세계지도자로 부상되기도 어렵게 되었다. 이런 뜻에서도 인류는 이제 역사적 전환점에 이르

렀다.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패권주의 보다는 한차원 더 높은 지구보전의식 내지는 세계주의(Globalism)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 인류가 21세기에 가서도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적으로 지구환경구제에 무관심한다면 지구환경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현세대 및 다음세대를 위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엄숙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UN이 초국가적인 지구환경 보호에 관여해야 할 필연성은 지구의 생태계의 피해가 외침에 의한 전쟁억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위기감에서이다. 그런 뜻에서 72년 UN인간환경선언에서 92년 리우환경선언에 이르기까지 오존층보호를 위한 의정서,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지구온난화 현상에 관한 기후협약, 생존층 다양성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등 환경문제가 등장하면서 근 1세기 동안 지배해온 경제패러다임 대신 21세기를 향한 환경패러다임이 전세계의 새로운 이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2. 환경선언과 환경교육의 연계

한마디로 권리장전과 인권선언의 의미는 민주화의 이념적 기둥이자 버팀목이다. 이런 뜻에서 권리장전과 인권선언은 모두 역사적 전환기를 넘기도록 단단히 한 묶음을 해낸 값진 교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절대군주의 왕권에서 자유평등사상의 인간적 권리를 쟁취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언과 헌장 내용이 오늘날 역사, 정치,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곳에서 귀감으로 그대로 반영되어 -민주화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라

할 수 있다. 그와같이 환경선언의 내용도 정치, 경제,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환경위기의 전환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사를 수놓아 온 환경선언 내용이 환경교육에 담겨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UN 인간환경선언 (1972)

인간환경선언은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으로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인류는 이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인류는 이제 환경이 주는 영향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지구상의 어디에서도 행동으로 나설때가 왔다. 자연계에서 인간의 자유를 확보하려면 사람들은 자연과 협조하여 보다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인류의 시급한 과제다.(선언 전문 6)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 즉 성인은 물론이지만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환경보호의 개선에 대한 개발된 견해를 가지게 하고 개인, 기업, 지역사회가 책임있는 행동을 취하게 하는 기반을 밝혀주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이다.(선언원칙 19) 인류 및 그의 환경은 핵무기 및 다른 모든 대량수단의 영향에서 구제되어야 한다. (선언원칙 26)

2) UN 세계자연환경(1982)

UN총회에서 인간환경에 이어 모든 인간의; 자연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 세계자연환경을 선포하였다.(1982. 10. 28) 지구상에 있는 유전자와의 생존능력은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 모든 생물의 개체수는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식처는 보호되

어야 한다.(일반원칙 ②) 자연은 전쟁 또는 절대적 행위로 인한 파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일반원칙⑤) 자연자원은 낭비되어서는 안되고 이 현장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라 한다.(임무 ⑩)

- ① 생물자원을 과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 ② 토양의 생산성은 부양능력이 유지되는 선에서 가능하다.
- ③ 물은 재이용, 재사용 해야 한다.

자연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하고 그 위험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임무⑪)

이 자연현장에 제시된 원칙은 국제적 수준뿐 아니라 각 국가의 법과 교육실행에도 반영되어야 한다.(집행⑭)

3) UN 리우환경선언 (1992)

UN리우환경회의는 인류역사상 최대 규모와 지구정상 회담으로서 환경의 새로운 이념화를 표방한 가운데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실천과제를 논의한 회의였다. 스톡홀름의 인간환경선언과 UN총회의 자연현장이 환경보전의 방향제시와 이념적 일방적 선언인데 비하여 리우환경선언은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담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종언 이후 환경이념이 인류의 새로운 공적으로 등장한 신세계 질서개편을 서두르게 되었다는 점과 환경을 이유로 산업, 무역, 생산, 소비 전반에 걸쳐 환경규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리우환경선언의 주요내용은 인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연과 조화를 이룬 가운데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도록 주장하고 있다.(원칙1)

개발의 권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개발 및 환경의 욕구를 공평하게 충족하여야 한다.(원칙 3)

또한 환경문제를 다룰 때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모든 개인은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관리와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원칙 10)

4) 국가 환경선언(1992)

우리 정부도 1992년 6월 5일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국가환경선언이 선포되었다. 이러한 국가환경선언의 맥락은 UN환경선언의 자극과 환경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는 연계된 정책결정이라 할 수 있다. 국가환경선언의 배경은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강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946년에 창설된 UNESCO가 자연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준 점과 1948년이 발족된 IUCN의 세계의 주요 자연보전기구로서 구실을 해온 점을 들 수 있다. 그후 1961년 독일연방 공화주의 마이нау회의에서 결정된 녹색헌장은 독일연방기본법에 환경권을 대폭 보장하여 세계최초의 환경우선국으로 발돋움한 것도 자극이었을 것이다. 그후 1970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 선언은 전세계 환경사에 남을만한 업적을 남겼으며 흔히들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1970)을 환경장전이라 부르고 있다. 또한 1978년의 우리나라 자연보호헌장도 국가환경선언의 주요 계기가 되었고 1987년의 UN환경특별위원회의 동경선언도 우리나라 국가환경선언에 자극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국가 환경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환경의 대한 인간의 올바른 인식과 환경용량의 범위내에서 살아야 함과 환경원리를 강조한 점이 돋보인다.

둘째, 무분별한 파괴 행위와 무관심이 인류의 지구환경까지 위협하므로 지속적인 발

전을 위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극복과제를 담고 있다.

셋째, 자연보호헌장이 이념적 선언인데 비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기업,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과제를 천명하고 있다. 끝으로 모든 인간은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권리와 함께 환경보전 의무를 강조하고 오늘의 세대는 물론 차세대에까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보전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기본원칙에서도 지구환경문제에 적극 동참하고 삶의 질 높이는 성장개념을 확립하고 (원칙 9) 지속적인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정부의 환경교육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지속성장에 따른 환경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국가환경선언과 환경교육의 연계성을 발전적으로 전개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 뒤 정부는 1997년 지구환경문제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인류문명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윤리 서울선언을 선포한바 있다. 이선언의 주요내용은 자연을 정복과 조정의 대상으로 삼아 인간의 무한한 물질적 탐욕을 충족시키려 하는한 지구환경파괴는 필연적이다. 라는 내용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실천원칙으로 ①생명공동체의 지속가능성보전, ②환경정의에 기초한 정책추진, ③과학기술의 환경친화성 증대, ④역할 및 책임분담에 의한 공생협의회 극대화 등 지구환경 윤리와 인류 공동선 추구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선언이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정부의 환경선언 기념행사 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IV. 환경교육의 동향과 당면과제

1. 환경교육의 동향

국제적으로 1946년에 창설된 UNESCO가 자연보호에 관심을 가져오던 중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에서 건의된 권고96호에 호응하여 UNEP 및 IUCN기관들과 협력하여 환경교육을 전세계적으로 진흥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서 우선 환경교육의 준거와 틀을 짜고 협동계획을 설정하였으며 UNESCO 교육부에서 환경교육의 계획과 집행을 전담하게 되었다. 그후 1975년의 벨그라드 헌장이 선포되고 1977년의 소련 트빌리시에서 환경교육에 관한 정부의 회의가 개최되고, 1987년 환경교육 및 훈련에 관한 UNESCO - UNEP회의가 개최되므로써 일면환경교육에 관한 국제간 동향을 살필 수 있게 된다.

UNESCO와 벨그라드 헌장의 표현에서 나타나 있듯이 환경교육은 자연 인공 생태학 정치 경제 기술 법률 사회 문화 미학 등의 총체로서의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같은 관점이 분명히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환경교육은 초기에는 개념정립, 목표설정 및 방법론에 주력했다. 또한 형식적인 학교환경교육과 비형식적인 성인교육, 청소년교육을 세계각국의 교육과정에 주입하는데 노력해 왔다. 전세계 환경교육의 동향은 대강 학교교육과 비형식적인 사회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큰 줄기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예외일 수 없이 1978년 자연보호헌장 선포를 계기로 환경교육이 태동되어 1980년 헌법에 환경권이 명문화되고 환경청이 창설되면서 부터 1990년에 이르러

서는 본학회가 창립되어 UNESCO와 교육부 후원으로 한국환경교육의 전략과 실천방안을 국제적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UNESCO본부를 통해 세계각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후 환경교육은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으로 채택되어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을 앞두고 있다. 긴 세월이 아닌데 비해 한국환경교육계의 열성과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 환경교육의 제약조건

환경교육의 국제적 관심은 종래의 성장체제와 전통적인 교육체계로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는 생태학적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별로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 쉽게 다가오지만 그 해결에는 오랜 세월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합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환경교육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된다.

또는 환경문제가 교육적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지닌 여러가지 사회적 속성과 제약조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관성의 힘

개방사회와 성장체제를 지속하려는 기존의 가치 제도 기술체계에는 관성이 있어 웬만해서는 그대로 지속하려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의 가치 제도 기술 체계로서의 전환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인성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가치체계는 오랜시간과 전통에 걸쳐 형성된 것이므로 그의 전환은 더욱 어렵다.

기존의 제도체제 역시 이해관계의 저항등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하여 환경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기존의 가치제도기술의 전환은 관성에 의해 산술급수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환경교육에 의한 문제해결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② 서로다른 가치관의 부조화

모든 사람이 일치하는 가치관만 세워진다면 환경교육에 의한 문제해결은 그 만큼 쉬워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문제는 국가간, 종족간, 계층간, 개인간 등의 무수한 가치와 부조화가 존재하게 되며 가치의 다양화는 공적인 환경지침과 행동규범을 설립하는데 최대 제약 조건이 될 수 있다.

③ 사경제적 시장구조

최대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반경제적 경제구조는 국가공익 호술 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불특정 다수에 의한 환경문제가 시장경제구조에서 제외되는 피해의 계량화가 어렵게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쉽게 가릴수 없다는 것도 환경문제 해결의 제약 조건이 된다. 사경제 체제가 존재하는 한 환경교육의 실현은 그만큼 어렵게 된다.

④ 시간적 공간적 한계성

일반적으로 문제의 공간적 폭이 크면 클수록 또 시간적인 폭이 길면 길수록 그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갖는 시간은 적어진다. 환경문제는 국가적 지역간 경계를 초월하여 광범하게 발생하여 시간적 또는 유동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생과 피해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인간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

환경교육이 어디서부터 접근해서 방법론 등

을 정해야 할지 측정하기 조차 어렵게 된다.

3. 환경교육이 당면과제 및 문제점

전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현행 정치, 경제, 사회, 교육문화체계는 성장과 풍요의 패러다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UNESCO와 벨그라드 헌장이 표현에도 나타나 있듯이 환경교육은 정치, 법률, 경제, 기술, 사회, 자연, 인공, 생태학, 미학 등의 총체로서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하는데도 아직 그러하지 못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성장의 관성에 의해 초래한 불균형의 문제를 초래한 무차별적 성장체계의 교육체계를 어떻게 하면 균형성장 또는 유기체적 성장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현 환경교육의 최대의 당면과제이다. 그중에서도 학교환경교육은 진행되고 있지만 가정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부재속에서 학교환경교육 조차 인식과 태도의 좋은 점보다 지식전달 교육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구나 학교교육등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비중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1996년의 신교육방안이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중에서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1985년부터 당시 환경청의 지원으로 환경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환경교육의 모델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환경교육실천 방안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우선 인류가 당면한 환경위기를 해소하려면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사회전체의 생태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과 인간의 이원주의에 입각하여 자연계를 인간의

피조물인양 혹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에서는 환경교육의 발전은 그 만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정책결정자, 계획입안자, 일반 대중론들은 환경보전 목표의 달성이 얼마나 시급한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한심한 일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경을 보전하는 일이 자기들에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환경문맹속에서 환경위기는 점점더 심화되고 있다. 환경교육의 필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째서 생태계를 보호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교육이 전 지구적 규모로 확대 일로에 있는데도 우리의 환경교육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지적이 있다

더구나 학습이론에서도 탐구이론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 재미있는 환경교육이 되지 못하다는 점과 다양한 교육개발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문제 상호간의 관련성, 광역성, 시차성, 자기증식성의 다양한 특성과 구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고 지나가는 수가 많아 특히 각 분야별 교육문제를 다루다 보면 다른 부분의 모순이 심화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생겨 문제를 어렵게 한다. 환경교육의 당면 과제와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환경교육은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학교교육 못지 않게 인터넷이 학교대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다양한 정보화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환경교육과 가정교육 및 사회교육을 연계할 지역환경센터 중심의 현장환경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환경 교육이 대학입시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성과 태도 중심의 환경학습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백두대간등 우리교육의 환경관을 확립하는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V. 21세기 환경교육, 생태패러다임 중심으로

21세기를 위한 환경교육은 자본축적보다는 자연과 함께 하는 인류공동체를, 개인의 욕망보다는 사회의 정의를 경제성장이나 부의 팽창보다는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공존 인류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생태패러다임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환경교육의 이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즉, 21세기 인류문명사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서구인들이 400년에 걸쳐 지구상에 뿌려놓은 교만과 횡포가 물고온 지구환경문제는 서구인이 그 해결을 담당해야 할 무거운 책임과 죄를 보상해야 하는 것은 서구인의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사회를 이끌어온 경제원리, 종교적 신앙, 사회문화, 정치이념, 개인의 윤리와 소망등에 대한 교육이 새로운 환경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새 환경교육은 지속가능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세우는 생태패러다임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물질의 개념, 생태적 계약론 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성장사회가 균형사회로 이전될 경우에 수반되는 정치이론과 교육이념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 하다.

1. 생태패러다임의 환경교육

21세기 환경교육은 자연과 인간공존의 대안교육으로서 생태패러다임(Ecological Paradigm)의 중심의 환경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토마스 쿤(Thomas Kuhn)에 의하면 한 시대에 특정한 사회에서 보통으로 인정되는 정상과학의 변화는 역사적 견지에서 누적되거나 직선적인 진보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제요소의 도전을 받아 위기와 혼돈, 저항과 갈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새로운 지식, 견해, 대안등이 급진적 또는 혁명적으로 득세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위기와 갈등속에서 변화·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역사적 발전단계를 대입해 보면 20세기를 지배해온 경제패러다임의 원리는 21세기의 환경패러다임 원리로 전환되어야 하고, 경제성장교육은 이제 생태패러다임 우선의 환경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최근의 국내외적으로 인간과 환경간의 생태적 위기의식은 주요한 정치적·사회적 이유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오존층 파괴, 온실효과, 산성비, 산림의 황폐화 및 이상기후 변화등이고 국내적으로 대도시 대기오염, 4대강 수질 오염, 시화호 담수화 포기여 이어 새만금호의 생태위기 그리고 동강댐 건설의 논란 등 지구 공동체 노력과 공공정책의 논의는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는 마침내 주요 국가 정책적 이슈가 되어 새로운 국가환경정책 수립과 함께 생태적 패러다임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생태적 패러다임은 가치체계면에서 새로운 환경교육을 요청하게 된다.

21세기 환경교육을 주도해 나갈 생태적

패러다임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① 환경파괴로 인하여 인류의 생존이 위협하다는 비판적인 주제
 - ② 폐쇄된 체제(closed system), 생명유지 체제(life support system)로서의 우주선(spaceship)의 개념
 - ③ 리사이클링(recycling)의 급격한 요구
 - ④ 현대기술 산업사회에 있어서 환경이슈의 긴급성
 - ⑤ 제로성장(zero growth), 정상상태(steady state), 비성장(non - growth) 등의 균형개념(equilibrium concept)
 - ⑥ 계획·통제를 통한 급진적 변화(radical change),
 - ⑦ 유기적 시스템의 상호의존성,
 - ⑧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의 예측불가능성, 경험적 검증의 곤란성이다.
- 위와 같은 생태적 패러다임과 관련된 주제들은 환경문제와 종합성, 포괄성 및 다양성을 시사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는 교육체계의 이론과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전개되어야 한다.

2. 생태적 정치이념을 체계화하는 환경교육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과 재화의 결핍이 정치를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었다. 생태학은 정치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어원을 보아도 Ecology나 economics에 공통되는 서두문자 Ecos는 희랍어로 Oikos에서 유래한 것이며, 가계, 집단 또는 공동사회의 관리를 의미하고 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란 포괄적인 것이 개념이며 종교, 교육, 재산의 관리, 관직의 분배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문제는 의식주와 같은 생태적 욕구를 충족 시키거나 재생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통사회의 생존문제이다. 이는 곧 생태적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플라톤이나 맹자도 인간주거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우려 하였고 루소도 물자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정치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종래의 전통적인 정치 행정의 이념은 재정립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평등의 개념은 사회경제체제가 직선적인 물리적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인류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와 가정속에서 출발하였다.

즉, 빈곤과 결핍에서 해방되어 부와 풍요로의 성장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不平等·不正義 문제는 제거내지 감소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구와 자본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가히 폭발적인 현재의 성장추세가 계속되고 더구나 기존 사회제도의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궁극적으로 빈부 격차는 더 커질 것이며 필연적으로 부의 分配를 통한 平等의 실현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John Locke와 Adam Smith를 비롯한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 경제학자들은 더 많은 풍요는 언제나 필요한 것이라는 성장의 패러다임을 사회발전의 기본 이념으로 하여 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

반면에 Kenneth Boulding등 성장의 한계론자들은 균형사회나 비성장사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평등성의 문제는 생산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

형평의 문제라고 역설한다.⁹⁾

William Ophuls에 의하면 인류의 생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로크의 자유주의 이념보다 흠스의 정치적 강제논리가 보다 설득력을 지닌다고 했다.¹⁰⁾ 생태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는 定常상태의 사회(Steady State Society)에 있어서는 일반대중에 의한 민주주의 정치보다는 엘리트 계층의 계도적 역할에 의한 정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된다.

오펜즈에 의하면, 정상상태의 사회에 있어서 개인은 生態的 제약하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미시적 자유(Micro Freedom)만을 향유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인류의 생태적 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되는 균형사회 또는 정치 교육체제의 특성을 오펜즈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

- ① 개인주의는 지역주민의 공생주의로 전환되어야 한다.
- ② 정치이념도 자유로부터 권위위주로 전환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 ③ 평등적 민주주의는 능력과 자유를 중시하는 계도적 엘리트 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 ④ 루소가 지적한 General Will, Not Will of all 이 성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Aristocratic Principles가 필요한 것이다.
- ⑥ 성장지향적 경쟁적 시장 메카니즘은 포기되어야 한다.
- ⑦ 자유방임적 의사결정 방식은 지양되어

9) The No - Growth Society, Daedalu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1973

10) William Ophuls, Ecology and the Politics of Society(San Francisco : W. H. Freeman and company, 1997.

11) Ophuls, op. cit.

야 하고 점진적 의사결정방식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 ⑧ 문화적 규범은 현재보다 더욱 다양화되어야 한다.
- ⑨ 전형적인 경제인 개념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 ⑩ 필요한 정치적인 덕은 개인의 자제이며 중국의 봉건사회 같은 사회가 생태적으로 건전한 사회이다.
- ⑪ 후기 산업사회의 새로운 정치적 교육적 가치는 생태적 위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⑫ 老·壯子의 道, 無爲自然思想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 ⑬ 아시지의 성프란체스코와 같은 인간과 비인간을 동등시하는 자연관이 바람직하다.
- ⑭ 최소한의 소박한 정상상태의 사회가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3. 생태적 문화를 체계화하는 환경교육

서구의 중세기독교 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였으며 이러한 인간중심의 인간 자연 이원주의가 마침내 인간의 개척정신을 고취시키고 물질문명의 발달을 가져왔고 자유방임적인 민주적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생태적위기의 근원이 되었다.

인간이 어떤 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에 따라 환경의 관리, 통제, 기획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Lynton Caldwell에 의하면, 인간이 환경에 대응하는 사회문화적 태도는 다음 네가지로 구분된다.

- ① 자유방임태도 : 환경파괴에 대한 별다

른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다.

- ② 기술에의 확신 : 생태적 위기는 인정하나 전문기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③ 반기술주의자 : 과학과 기술에 의한 산업주의는 환경파괴의 근원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 기술의 발전을 포기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 ④ 선별문화 : 생태적으로 분별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과 기술의 사용을 통제, 기획, 관리하는 것 뿐아니라 라는 입장이다.

콜드웰은 유토피아적 반기술, 반관료적 접근방법, 자연적인 자연복귀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생태적 원리에 기초한 계획경제, 통제관리 등 목표와 관리로 명백히 하는 ③반기술주의의 주장내지는 ④선별문화의 형성이 기본적 과제라고 한다.

이러한 생태학적 문화권 즉, 환경문화의 형성을 위하여는

첫째로, 개인적 수준에서 볼 때 생태학적인 정치문화의 과정에서 일조권, 전망권 등 환경권의 보전, 환경보전을 위한 참여 민주주의 투표행위 및 정치행태가 문제된다.

둘째로, 사회적 수준에서 환경부서등 공공기관의 형성, 위원회 구성, 의회의 재편성, 시민참여, 공공정책결정, 환경교육 등 새로운 접근과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즉 생태적 사회문화를 체계화 하는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성장일변도의 정치행태, 기업의 윤리, 사회의 목표에서 균형성장의 선별문화를 지향하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VI. 지구 구제를 위한 환경인의 자세

우리는 가끔 지구를 구제하기에는 너무 늦었는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인류의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어느 국가 어떠한 정치 경제체제를 불문하고 범 세계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성장사회를 전제로 한 로크와 스미스유의 정치적 패러다임은 균형사회를 지향하는 Hardin유의 생태적 패러다임으로 코페르니쿠적 전환이 요망된다. 따라서 우리는 생태계의 물리적 한계를 인식하여 생태적차원에서 적절한 정치철학의 형성, 정치이념의 모색, 새로운 가치 및 윤리의 창조, 사회체제의 변화 및 생존전략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생태학적 정치이론은 규범적 정치철학, 경험적 정치분석, 정치적 동태, 정치기구, 공공행정, 입법행태, 사법과정, 비교정부, 규제관계 등 정치학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 정치학(Environmental Politics)이나 환경문화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프레임워크나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는 인류의 생태적 위기라는 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이론에 근거한 환경교육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교육은 후기 산업사회의 관점에서 보다 가치있는 인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즉 환경적으로 건전한 발전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적절히 소유하는 자세 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구구제를 위한 21세기 환경인의 자세는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 ① 모든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에 앞서 생태적 관점을 우선하는 겸손과 겸허한 마음이어야 한다.
- ② 자연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서 절제 절약하는 자세이어야 한다.
- ③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다.
- ④ 인간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분별력 있는 사고행동을 취해야 한다.
- ⑤ 가난은 불편할 뿐 “淸貧淸富思想“을 생활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 ⑥ 탐욕, 물욕보다 금욕주의가 환경친화적 자세이다.
- ⑦ 참여하는 민주주의로 환경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바로 21세기 환경인의 올바른 자세라 할 것이다.